

##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李 興 卓  
(韓國外大·社會學)

“깃뜨리디히 헤디유? 다이아운, 더울호.”(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치 독일의 어느 시골에 온 듯하다. 내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뉴 홀(New Hall) 기숙사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나에게 갓 20세가 될까말까한 대학생이 뉴 홀이 아니라 네이어드 라이헬(Neuadd Reichel) 기숙사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네이어드 라이헬이란 웨일즈 말로 뉴 홀이라는 뜻이었다. 어디 별천지에라도 떨어진 듯한 느낌이다.

대학 기숙사의 게시판을 쳐다보니 온통 무슨 소린지. 영어(?) 스펠링부터가 생소하다. 그도 그럴 것이 게시판에 쓰인 것이 영어가 아니라 켈트족이 쓰는 웨일즈語였다.

이 곳 웨일즈의 최북단에 있는 방거시에 도착한 것이 1968년 9월 30일 저녁 무렵이었다. 대학 기숙사의 저편으로 웨일즈 북단과 앵글시섬을 연결하는 메나이 브리지가 가을 햇빛에 황금빛을 발하며 잔잔한 바닷물 위에 그림 같이 떠있다.

탐스러운 파란 잔디가 내려다 보이는 기숙사 건물 이층의 63호실이 내 방이었다. 저녁 6시. 아래층 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식당문 앞에서 포터(수위)가 대학 가운을 걸치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귀뜸을 해준다. 그리고 보니 식당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모두 마치 중세의 수도승들이 걸치고 다녔던 것 같은 검은색 가운에 검은 넥타이 차림이다. 황급히 다시 버서(bursar)에게 이야기하여 가운을 지급받고, 식당에 들어서니 막 식사시작 전의 라틴어 구절 암송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슨 소린지 그저 옆에 서있는 학생들과 같이 몇 마디 중얼거린 후 자리에 앉았다.

식당의 좌석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었던 듯. 내가 앉은 자리에는 웨일즈 학생이 3명, 잉글랜드 학생이 2명, 영국과 프랑스의 이종국적 생물학도, 공산당 당원증을 가진 스코틀랜드 태생의 철학도 각각 1명씩, 그리고 나까지 합해서 8명이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웨일즈 학생들이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줄곧 웨일즈語로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자 잉글랜드 출신의 공학도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같은 영국 학생이라도 투박한 스코틀랜드의 방언을 쓰는 공산당 당원증을 가진 철학도는 아예 이들 웨일즈와 잉글랜드 학생들의 언쟁에 참견할 의사조차 없는 모양이다.

이 좁은 영국땅에 앵글로 색슨의 후예와 켈트족의 후예들이 서로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異民族도 아닌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웨일즈대학은 4개의 캠퍼스가 카디프, 스완지아, 에버리스투스, 그리고 방거에 흩어져 있어 이름만 웨일즈대학일 뿐, 실제로는 각 대학 캠퍼스가 독립된 학사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의 각 단과대학(college)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학사운영 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영국의 종합대학(university)은 졸업식과 입학식 행사만 거행할 뿐, 모든 학사일정은 단과대학에서 주관하고 있다. 종합대학은 이름 뿐,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에 가서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이 어디 있는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그런 대학이 없다는 대답을 듣기 일쑤다.

그 이유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란 이름의 단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각 단과대학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강의는 단과대학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學科單位로 이루어지므로 강의실에서는 단과대학의 구별이 없어진다.

대학교수의 경우도 경제학을 강의하는 교수는 경제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편, 동시에 각 단과대학의 교무위원(fellow)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학과 소속과 단과대학 소속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된다. 즉, 같은 경제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A와 B 두 교수 중에서 A교수는 甲이란 단과대학에, B교수는 乙이란 단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1968년 필자가 처음 웨일즈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아직도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영국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 간의 격의없는 대화의 기회였다.

전공학문 분야에 관한 교수의 학생 개별지도인 튜토리얼(tutorial)과는 별도로 강의시간 이후, 특히 저녁시간에 지도교수와의 면담(supervisor's evening)이 빈번히 이루어져 학생들은 교수를 통해 앞으로 그들의 진로와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며, 교수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격도야에 보탬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지도교수와의 면담제도는 미국의 경우는 대체로 튜토리얼의 형태로 끝나게 되는 것이므로 영국 대학교육의 특이한 제도라 불리운다. 1988년 필자가 학생의 신분인 교수의 신분으로 케임브리지대학 다윈칼리지에 갔을 때도 1968년 웨일즈대학에서 내가 처음 접했던 지도교수와의 면담제도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단지 20년 전에는 학생신분으로 지도교수와의 면담에 참여하였던 것이 20년이 지난 1988년에는 교수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만이 달랐을 뿐 '면담제도'는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칼리지의 지도교수와의 면담제도를 참고로 살펴보자.

지도교수와의 면담은 대개 저녁 6시 정도에 시작된다. 교수와 학생 다같이 각 대학의 가운데를 걸치고 포멀 디너(formal dinner)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등을 모두 끄고 촛불을 켜 채 붉은 포도주잔을 사이에 두고 교수와 학생이 '대화'하게 된다. 저녁 8시 시작된 이 면담은 대개는 밤늦은 시간, 때로는 새벽녘까지 이어진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커피 라운지로 장소를 옮기고, 여기서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때로는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단과대학의 부속교회(칼리지 채플이라 불리운다) 안에서 교수와 학생들 간의 대화가 이어지게 된다. 대화의 내용은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제출할 논문의 마지막 손질에 관한 것에서부터 옥스퍼드의 퀸즈칼리지 연구교수(research fellow) 자리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내용이 대화의 주종을 이루며, 작가 루시디의 예술감독 교리비난에 대한 시사적인 내용 등 다양한 소재가 포함된다.

밤늦은 시간 트리니티칼리지의 그레이트 코트나 네빌스 코트를 거닐다 보면 심심찮게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와 한창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20, 30대의 학생들이 칼리지 채플 안에 있는 수많은 동상들을 돌아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부딪치게 된다. 이 트리니티칼리지 단과대학의 부속교회

안에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 왔던 이 대학 출신 저명학자들의 동상이 즐비하다. 이들 동상을 학생과 같이 둘러보며 노교수는 학생에게 이미 역사에 묻힌 학문발전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젊은이들에게 지식인 겸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도야를 부탁하는 것이다. 이 단과대학의 부속교회 안에는 이 대학이 배출한 뉴턴, 바이런, 드라이든, 테니스, 머콜리, 프레이저, 하우스만, 러셀, 비트겐슈타인, 케인즈, 스라파의 동상과 명패가 사면벽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성격이 괴팍하기 그지없던 뉴턴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시켜 준 뉴턴의 스승 아이작 베로우(1630~1677) 교수의 동상 앞에서는 어느 누구의 동상 앞에서보다 노교수와 젊은 학생 간의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는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자인 뉴턴에게 학문의 길을 터주기 위해 자신의 수학교수 자리를 과감히 내어 놓으면서 “뉴턴의 머리는 나의 머리보다 월등히 명석하다.”는 말을 했다는 베로우 교수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 만유인력의 현상을 수식으로 정리하는 데 성공하였던 뉴턴에게,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만유인력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하였던 사람은 베로우 교수였다. 뉴턴의 비상했던 머리도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만약 까다로운 성격의 뉴턴이 스승 베로우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그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비록 그가 후일 케임브리지를 떠나 조폐공사의 사장으로 발탁되면서 학문의 세계를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어쨌든 뉴턴은 고매한 인격을 갖춘 스승을 모실 수 있었던 행운을 누렸던 사람이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학문을 논하는 것 이상으로 ‘지도교수와 의 면담’을 통하여 교수는 학생들을 편협하고 응축한 전문가나 기술자가 아닌, 한없이 넓은 도량을 가진 인격자로 양성해 나가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영국 대학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이 학문에 관련된 것이건 또는 인생 전반에 관련된 것이건 가릴 것 없이 교수는 학생을 세심하게 보살피주며, 학생은 언제라도 교수의 충고나 조언이 필요할 때면 교수를 찾아 허심탄회하게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오늘날 영국 대학교육의 풍조가 곧 지도교수와 의 면담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몇 줄의 물리학 이론이나 몇 가지의 기술만 ‘전수’하고 그것으로 학문의 일부나마 다음 세대에 전하는 데 기여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대학은 암울할 따름이다. 기술자를 길러내기 전에 인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막중한 임무일진대 오늘날 이 나라의 대학은 기술자 양성에만 급급하지 않은가?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계열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충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한국의 대학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양성은 뒷전으로 하고 기술자의 양성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사회, 산업혁명과 문화의 일대 변혁을 동시에 경험해야 했던 이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 전문 기술자들만은 아닐 것이다.

전문 기술자들이 전수한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웅대한 인격을 갖춘 지식인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만에 하나라도 방향을 잃고 허둥대는 기술자가 있다면 그에게 이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참다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식인들이 필요한 것이다.

기술자를 양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식인들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아직도 깊이있게 생각하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은가?

지도교수와 의 면담제도가 이 땅에도 되살아나 대학이 기술의 전수도장에서 사제지간의 참다운 대화의 장소로 탈바꿈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할 뿐이다. ■